



##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V2X 전문기업 에티포스

에티포스는 창립 초기부터 '통신 기반 자율협력 기술(V2X)'을 중심에 두고 성장해 온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SDM(Software Defined Modem) V2X 모뎀에 기반한 장비와 솔루션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공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에티포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재 경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에티포스는 세계 최초 수준의 5G-V2X 모뎀 상용화에 기반하여, 기존 외산 칩셋 의존에서 벗어난 V2X 전용 칩셋 ESAC(Ettifos SIRIUS Accelerator Chip)을 선보이며 국내 칩셋 수준의 V2X 기술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V2X 통신모델 전문 스타트업으로서 자체 통신모델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아, LB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투자사로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나아가 에티포스는 5GAA 및 ITS America 등 국제 협의체 활동과 주요 글로벌 세미나 참여를 통해 V2X 솔루션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OmniAir Consortium 인증 취득 및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규정 준수를 추진하며, K-ITS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하고 있다.



“V2X 솔루션으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를  
실현하고, 한국의 기술을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 에티포스 김호준 대표

**에티포스는 창립 초기부터 ‘통신 기반 자율협력 기술(V2X)’을 중심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에티포스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에티포스(Ettifos Co.)의 정체성은 “자체 개발한 SDM(Software Defined Modem) V2X 모뎀에 기반한 V2X 장비회사”라는 점입니다. 에티포스는 세계 최초 수준의 5G-V2X 모뎀 상용화에 기반하여 타사가 제공할 수 없는 장비와 솔루션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최근 10월에는 글로벌 고객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V2X 모뎀 IP를 적용한 첫 번째 V2X 전용 칩셋 ESAC(Ettifos SIRIUS Accelerator Chip)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국내 V2X 장비 및 시스템은 전적으로 외산 칩셋에 의존하여 막대한 로열티 비용 부담과 기술 종속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ESAC 개발로 국내에서도 칩셋 수준의 V2X 기술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티포스는 V2X 통신모뎀 전문 스타트업으로, 자체 통신모뎀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LB인베스트먼트, L&S벤처캐피탈, 교보증권, 케이알벤처스, 메디치인베스트먼트·IBK캐피탈, BNK벤처투자,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스틱벤처스, SL인베스트먼트, LIG넥스원이 참여한 총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누적 투자액 305억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최근 5G V2X, 듀얼모드 RSU/OBU 등 다양한 기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에티포스가 이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나 교훈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교훈은 '쓸모 있는 기술,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에티포스는 2018년 DSRC 기술 도입부터 2023년 12월 한국 표준화된 LTE-V2X, 그리고 미래 지향적 5G-V2X까지 시대적 기술 동향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티포스의 주력 제품

특히 듀얼모드 RSU/OBU를 통해 현장장비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규격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검증할 수 있었고 빠르게 발표되고 있는 새로운 규격에 하드웨어 의존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확장할 수 있는 Software Defined Radio/Modem(SDR/SDM) 기술을 적용한 5G-V2X 플랫폼(SIRIUS)을 개발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RSU/OBU 제품군을 C-ITS 인증 획득(2025년 9월)으로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에티포스의 기술이 집약된 V2X 칩셋, ESAC을 2025년 SEDEX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점은 기술의 유연성이 시장 적응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5GAA 베를린 데모 행사에서 '5G-V2X 사례를 발표하는 김호준 대표

글로벌 시장에서는 표준화와 조달 요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티포스가 이러한 국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방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에티포스는 '다양한 글로벌 행사 참여'를 기반으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와 ITS America 등 국제 협의체의 정식 멤버로서, 매년 CES, MWC, ITS World Congress 등 주요 세미나에 참여해 V2X 솔루션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ITS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OmniAir Consortium 인증' (V2X-AIR OBU, 2025년 취득) 취득 및 미국 내 생산조립을 기반으로 BABA(Build America Buy America) 규정을 준수하고 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북미 시장 V2X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에티포스의 기술력

**Keysight, Ettifos, and Autotalks Make First 3GPP Release 16 Sidelink Radio Interoperability Connection**

- Successful vendor-to-vendor sidelink interoperability test paves the way for 5G vehicle-to-everything advancements
- Ettifos vehicle-to-everything test solution enabled rigorous physical layer testing, assuring reliable, interference-free communications

SANTA CLARA, Calif., August 16, 2023

**Keysight Technologies, Inc. (NYSE: KEYS)** enabled the first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GPP) Release 16 (Rel-16) sidelink radio interoperability test between the Ottawa, Ontario, Canada radio partners and the Australia (ECTC) 5G-U2X chipset through the **Keysight Testbed Standard Definition for NR-V2X and 8-antenna 5G NR V2X Modulation Analysis Measurement Application**.

An essential for connected cars, maps and autonomous driving gains momentum, the expansion of 5G for automotive use comes with specific requireme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Sidelink communication, a crucial feature for cellular vehicle-to-everything (C-V2X), allows vehicles to share information and reduce accident risk. The standard specifies a range of requirements for the New Radio (NR) V2X specification based on the Rel-16 standard, with greater throughput, enhanced reliability, and lower latency while allowing vehicles to share rich, real-time data that support autonomous and connected driving experiences.

**Ettifos, SEDEX 2025서 국산 V2X 가속기 칩 'ESAC' 첫 공개**



**Ettifos V2X-AIR now BABA-compliant**

This means US firms can now deploy to federally-funded projects without waivers.



Ettifos informs that to complete an based unit and aftermarket OBU device called C2X-AIR is now compliant with build America Bus service mobile requirements.

## 에티포스가 실제 프로젝트나 테스트베드에서 보여준 '현장 문제 해결력'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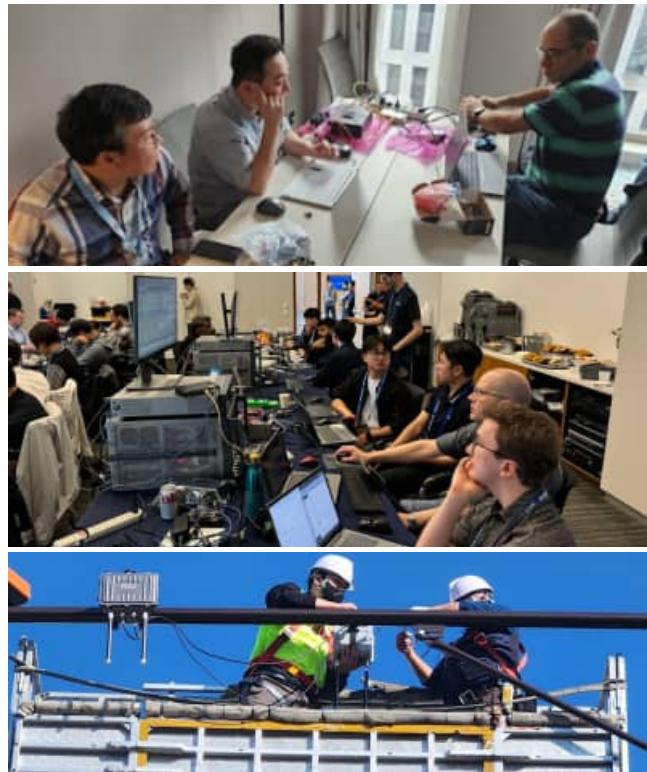
에티포스의 현장 문제 해결력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빠른 대응'에서 빛납니다. 모뎀 기술 전문인력과 솔루션 대응 인력이 현재 전체 직원의 70%가 넘는 조직 구성 덕분에, 문제의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엔지니어들의 신속한 대응이 파트너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ITS Korea 인증 과정에서 상호 호환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 현장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수한 노력이 지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에티포스가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재 육성이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실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에티포스는 현재 5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조직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국외 ITS 시장(특히 V2X 관련)의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와 고객 Needs 대응을 위해서 더 많은 구성원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전문성과 협업을 통해 목표를 성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재 즉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ITS 혁신을 주도하는 에티포스의 다양한 프로젝트 현장



##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서 에티포스의 기술이 가질 미래적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빠른 시대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매번 기술을 개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하드웨어의 변화는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로 대응할 수 있는 Software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첫걸음인 에티포스의 IP 기술을 집약하여 련칭한 V2X 칩셋, ESAC이 에티포스의 미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V2X 솔루션 (서비스, 단말기 등)을 자체 기술을 기반하여 구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한국 반도체를 기반한 기술 및 제품 공급 및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ESAC기반 RSU/OBU가 도심 전체에서 표준화된 V2X 기반의 역할을 하며, 도로 사용자들을 위한 스마트 신호·긴급차량 우선 통행보행자 안전 서비스 등의 안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에티포스가 그리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에티포스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V2X 솔루션의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마켓에서 많은 해외 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V2X 솔루션 공급자, V2X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한 개발과 투자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기술에 한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해외 모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도약을 통한 통신 기술 로열티를 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성실히 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티포스의 V2X 칩셋 'ESAC'